‘부처님 법 전해요’ 젊은 부처들 문화 한마당

봉선사, 7월 19일 광동고서 첫 ‘연꽃청소년음악제’ 봉행

광동중고, 영석고 등 9개팀 경연 학생 500여 명 참석해 열띤 환호 27일, 봉선사 연지서 ‘음악회’도

남양주=노덕현 기자


제1회 연꽃청소년음악제에 나선 종립학교 학생들이 신명나는 공연을 펼치고 있다.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남양주 광동고 운악관을 가득 메운 청소년들이 한목소리로 상월결사 정신을 상징하는 구호를 외쳤다. 청소년들이 저마다 준비한 춤과 노래로 젊음의 열정과 불자로서의 연대를 나누는 자리가 7월 19일 남양주 광동고등학교에서 펼쳐졌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 상월결사 이사장)는 7월 19일 남양주 광동중·고 운악관에서 ‘제1회 연꽃청소년음악제’를 개최했다.

첫회를 맞는 이날 행사는 청소년 전법을 위한 상월결사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대 연꽃이 되소서, 제가 진흙이 되겠나이다’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날 행사에는 상월결사 순례단이었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함께했다. 원로의원 동명 스님, 교육원장 범해 스님,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선업 스님, 총무부장 성화 스님, 종책모임 화엄1회장 심우 스님, 화엄2회장 선광 스님, 화엄3회장 삼조 스님, 종회총무분과위원장 오심 스님 등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봉선사 본말사 스님들도 대거 참석해 이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음악제는 짧은 불교의식과 함께 곧바로 종립학교 학생들의 경연으로 들어갔다. 남양주 광동중 ‘나의 멜로디’ ‘레디언트’, 광동고 ‘리버브’, 의정부 광동고 ‘스트라이트’ ‘김도명’, 영석고 ‘파라미타’, 남양주고 ‘디퍼런트’, 남양주연합댄스팀 ‘엘로’ 등 각자 준비한 춤과 노래를 선보였다. 또 김포대 댄스팀, 퓨전걸그룹 ‘파스텔걸스’도 신명나는 무대를 만들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청년불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다. 방학이 시작된 오늘 함께 춤추고 즐겁게 보내자”며 “봉선사 연꽃 연화장 세계를 광동고 운학관으로 옮겼다. 오늘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스님들도 힘을 내 전법에 나서자”고 말했다.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축사에서 “우리 불교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음악을 통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소년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지금 이 곳이 세상의 중심이고, 여기 있는 청소년 여러분이 이 곳의 중심”이라며 “부처님 법 전하자”고 외쳤다.

음악제에서는 경연이 거듭될수록 열기를 더해갔고, 스님들이 응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자리를 내주자 콘서트장처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연출했다.

한편, 봉선사는 7월 27일 오후 7시 경내 연지 상설무대에서 ‘연꽃축제 음악회’를 열었다. 음악회에는 연꽃청소년음악제 수상팀 및 상월청년합창단, 상월비보이 이에이트 쿠루 등 상월청년들의 음악 공연과 가수 우순실, 방정식, 장사익, 최예림 씨의 무대가 펼쳐졌다.

조계종복지재단, 익산 지역에 긴급구호물품 지원

7월 22일 지원본부에 물품 전달 덕운 스님 등 복구 작업에 동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7월 22일 익산 수해지역을 방문해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피해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재단)이 사상 유례없는 극심한 수해를 입은 전북 익산시를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피해주민들을 위로했다.

재단 사무처장 덕운스님과 직원들과 함께 7월 22일 오후 익산시 나바위성당에 설치된 지원본부를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도너츠 2000개, 과일음료 3000캔, 프로틴음료 4000개, 요거트 4000개 등 총 3000만원 상당이다.

심보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덕운 스님은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큰 지원은 아니지만 구호물품이 곳곳에 쓰여 시민들께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사무처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김진희 씨 집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으며, 토사유입으로 막힌 농지 배수로 확보작업과 무너진 둑 복구작업에 동참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김진희 씨는 “지난 폭우로 집 담장이 무너지고 논둑이 무너져 토사가 유입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재단은 지난 19일 재난판정위원회를 개최해 수해지역 구호를 결의했으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원불교봉공회 등과 연계하여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취담당 일현 대종사 33주기 추모다례재

7월 21일 마곡사 관음전서 교구 노스님 · 학인스님에 생활지원금 · 장학금 전달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는 7월 21일 경내 관음전에서 근대 불교 의례 거장인 취담당 일현 대종사 33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마곡사 원로 성연 대종사, 주지 원경 스님, 총무국장 원묵 스님, 사회국장 도계 스님, 재무국장 법등 스님, 봉서사 주지 자암 스님, 봉곡사 주지 서웅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과 본·말사 대중 스님, 선원 정진 스님이 동참해 유훈을 기렸다.

다례재는 범종 5타를 시작으로 헌향과 헌다, 원묵 스님과 도계 스님의 종사영반, 일현 대종사의 행장소개와 육성염불 시청, 원경 스님 봉행사와 자암 스님 추모사, 장학금 전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원경 스님은 “평생 교육사업에 투신하시고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한 스님의 삶을 다시 한번 반조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다례일에 정진 중인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교구 노스님 15명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또한 학인 스님들에게는 매달 학비 보조금을 함께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암 스님은 추모사에서 “스님 목소리는 철저한 수행에서 나오는 진정한 염불삼매의 소리며 후학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다시 한번 일현 대종사를 추모하며 수행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동국대, 일본 화원대, 동학사 승가대학, 동학사 승가대학원, 중앙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교대학원, 운문사 승가대학, 능인대학원에서 수학 정진 중인 12명의 스님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선운사, 윤명 선사 41주기 추모다례재

갑진년 하안거 포살법회도 함께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선운사의 교구본사 승격을 이끌고 초대 주지를 역임한 남곡당 윤명 선사 41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7월 22일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다례재는 남곡당 윤명 선사 영전을 향한 사부대중의 삼배에 이어 행장소개, 문도대표 재곤 스님의 헌향과 헌다, 종사영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 헌향과 헌다, 추모 입정, 공지사항, 회향삼배의 순으로 진행됐다.

남곡 문도를 대표해 재곤 스님은 인사말에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은사스님의 추모다례재에 잊지 않고 참석해주신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후학들은 은사스님의 유지를 이어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곡당 윤명 스님은 1931년 장성 백양사에서 영호 스님은 은사로 만암 스님을 계사로 득도 후1934년 만암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3년 불교정화운동으로 격렬했던 비구대처 양설을 화합하는데 주력하고 총무원 재무부장, 교무부장, 조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66년 초대 24교구 선운사 주지 소임을 맡아 선운사 천왕문과 대웅보전, 도솔암을 중창하고 1983년 세수 73세, 법납 54세로 선운사에서 입적했다.

오후에는 불기 2568년 조계종 24교구 선운사 갑진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 강주 혜수 스님이 포살법사를 맡아 진행된 이날 포살법회의 참가 대중은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독송하며 계율을 준수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을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서 만난 꿈같은 여름밤 ‘화야몽’

7월 20일 보제루서 1차 행사
‘MZ세대’ 연성 스님과 차담
8월 24일까지 세 차례 진행



뜨거운 여름, 산사에서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는 화엄사 화야몽(華夜夢) 행사가 열렸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7월 20일 경내 보제루에서 2024년 제1차 화야몽을 개최하고, 연성 스님(광주 빛고을포교원 주지)을 초청해 ‘나 그리고 가족’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화엄사 야간 개방과 함께 열린 프로그램으로, 화엄사 ‘MZ세대 스님’으로 유명한 연성 스님과의 차담, 소원지 작성, 야간 화엄사 탐방 등 다양한 활동들로 진행됐다.

차담에는 사전 신청한 젊은 가족들과 경북대 불교동아리 회원 20명이 참가해, 연성 스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님들 생활, 불교의 의미 등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고, 스님은 자신의 출가 이야기를 통해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연성 스님은 “불교의 시작은 지금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며 “내 안에 욕심, 화, 어리석음이 있어 마음이 가라앉거나 들떠 있으면 고통이 일어난다. 이를 모두 제거한 상태가 행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엄사 화야몽은 2차 부부와 연인 초청(7월 27일, 범문 스님), 3차 자유신청(8월 10일, 범정 스님), 4차 부모님과 함께(8월 24일, 연우 스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양 불암사에 특별한 박물관 문 열다

7월 20일 전시관 개관법회



사단법인 불암사(이사장 신명옥)는 7월 20일 경내에 조성한 ‘불암사 유물전시관’ 개관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관한 유물전시관은 기존 방으로 사용되던 공간 130여 평을 리모델링해 전시 공간으로 마련하고,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작품 100여 점을 상설로 전시한다.

개관식에는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해전 스님,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등 스님, 고성 폭포암 현각 스님, 수황사 벽암 스님을 비롯해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박우육 전남도청 문화융성국장 등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신명옥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조상들의 정신문화와 미래를 연결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유물전시관을 개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전통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광양시 문화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전 스님은 축사를 통해 “한민족 정신문화의 원형은 불교에 있다. 지금의 혼돈시대를 불교의 전통가치관을 통해 올바르게 바꿔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문화硏 ‘2024 전주 연꽃문화축제’ 개최

7월 20~21일 전주 덕진공원서



전북 전주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만개한 연꽃을 즐기는 2024 전주 연꽃문화축제가 열렸다.

(사)우리문화연구원(이사장 화평 스님·금산사 주지)는 7월 20일과 21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2024 전주 연꽃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축제 개회식에는 이사장 화평 스님, 금산사 부주지 덕림 스님, 포교국장 효진 스님, 전북불교회관 제환 스님, 귀신사 주지 무여 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보림사 회주 종범 스님 등을 비롯해 국주영은 전 전북도의장 등 전주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에 앞선 인사말에서 우리문화연구원 이사장 화평 스님은 “아침에 폭우가 쏟아져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폭우 속에서 연꽃축제를 준비한 스태프들에게 감사하다”며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 전주 시민들은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길 빌며 연꽃축제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불교대학, 서거석 교육감 공감 토크

7월 21일 교내 큰법당서



사단법인 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7월 21일 교내 큰법당에서 ‘전북교육의 방향’이란 주제로 여름방학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AI, 챗지피티(chatGPT) 등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 바른 인성 교육, 예체능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뤄졌다.

이창구 전북불교대학장은 인사말에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전북교육의 책임자인 서거석 교육감의 철학과 교육 방향을 듣고 질문하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은 “기초학력을 넘어 학력 신장을 이루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지역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교육 방향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